

Foreseeable Tensions and Inclusion: An Examination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Foreign Residents in Seoul

Min-gyu Lee*

The Seoul Institute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with a particular focus on identifying the structural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that warrant attention. For this purpose, the foreign population in Seoul wa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non-naturalized foreign residents, naturalized citizens, and children of foreign nationals—and their demographic trends were subsequently examin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size of the foreign resident population has rebounded since the conclusion of the COVID-19 pandemic, the overall growth trajectory has shown signs of slowing. Second, in contrast to the national average, the proportion of women among foreign residents in Seoul is markedly higher. This is largely attributable to women constituting more than 60 percent of both marriage migra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Third, the foreign resident population is not immune to the broader phenomenon of demographic aging. Notably, 35.2 percent of non-naturalized foreign residents are over the age of 50, suggesting that aging within this group is likely to emerge as a salient policy concern over the next five to ten years. Fourth, the composition of foreign residents has become increasingly diversified, with Southeast Asian nationals demonstrating particularly rapid growth. Fifth, one of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Seoul's foreign resident population is the predominance of ethnic Koreans from abroad, who account for 84.9 percent of all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the city. Sixth, Seoul continues to serve as a key hub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disproportionately

* Lee, Min-gyu. The Seoul Institute. E-mail: obscurecount@gmail.com.

concentrated in the capital relative to other regions of the country.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underscore a number of policy implications. Most importantly, the role of foreign residents in mitigating population decline appears limited; rather, their growing presence is likely to generate new demands on the social welfare system and pose challenges for service provision. Moreover, while the rising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can be regarded as a positive development, it also raises potential tensions related to labor market competition,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and distributive equity. The overrepresentation of Chinese nationals highlights the persistent challenge of managing anti-Chinese sentiment in Korean society. Finally, the disproportionately high share of women among foreign residents calls for sustained public deliberation and consensus-building regarding the applicability and scope of gender-focused policy measures.

Keywords

Foreign residents, Immigration policies, Aging, Social Integration, Population Extinction

예견된 갈등과 포용: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인구구조 특징과 정책적 함의

이민규*

서울연구원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거주 외국인주민의 인구구조 특징을 서울시 현황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주목해야 할 이슈를 살펴보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의 현황을 한국 국적 미취득자, 취득자, 외국인 자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추세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종식 이후 외국인주민은 재차 증가하였지만,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 둘째, 전국 대비 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결정적 이유는 결혼 이민자와 유학생 중 60.0% 이상이 여성인 것과 관련 있다. 셋째, 외국인주민 사회 또한 고령화 이슈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국적 미취득자 중 35.2%가 50대 이상으로 향후 5-10년 이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출신 국가가 다원화되고 있고, 그중 동남아시아 출신이 급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외국 국적 동포 비율이 높다는 것 또한 핵심 특징 중 하나이다. 이중 한국계 중국인이 84.9%로 중국 동포가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중 주요 구성원임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서울은 유학생 선호도시로 유학생 비율이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 특히 서울시가 직면해야 할 외국인주민 이슈가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인구소멸 대응책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하겠다. 오히려 사회복지 대상과 범위 이슈를 낳을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유학생 비율은 긍정적 현상이지만, 취·창업 경쟁과 형평성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높은 중국인 비율은 ‘반중 정서’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이슈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여성 비율은 여성 정책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주제어

외국인주민, 이민정책, 고령화, 사회통합, 인구소멸

* 이민규, 서울연구원. 이메일: obscurecount@gmail.com.

I. 서론

1. 연구 배경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소멸’을 넘어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지속되면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강동관, 2021).¹⁾ 2005년부터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이 0.721명까지 하락하면서 인구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이주민 유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인구정책의 핵심 분야로 등장하게 된다(김수정, 2019, pp.153-155). 비록 ‘이민 확대론’과 달리 이민정책과 인구정책을 연계하는 것을 경계하는 ‘이민 신중론’의 목소리도 작지 않지만, 신중론자 역시 이민정책의 활용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병하, 2023, pp.23-25).

이민정책(혹은 외국인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2023년 재외동포청 신설에 이어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변화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특성 그리고 지난 3차 기간 동안의 한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제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2023년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발표를 통해 ①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 ②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③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④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등 5가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를 제시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여성가족부 또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①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②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4개 대과제

1)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을 국경·출입국 및 체류 관리, 사회통합과 국적 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으로 규정.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까지 포함(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p.6).

14개 중과제를 제시한다(관계기관 합동, 2023).

지역 소멸의 당사자인 지자체 역시 관련 부서를 신설 및 확대하고, 산하 시정연구원과 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외국인주민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재정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도인 서울시는 2024년 5월 「제3차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전담 부서인 글로벌도시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하였다. 경북연구원은 광역비자(R비자), 외국인 산업인력, 지역특화형 정부초청장학제도(R-GKS) 등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지역 소멸이라는 이슈의 심각성과 외국인주민 규모(2023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주민 246만 명) 등을 고려하였을 때,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 연구는 ‘걸음마’ 수준임을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2000년에서 2025년 7월 기간 ‘외국인주민’을 키워드로 논문 제목을 검색한 결과, 총 32편의 논문만이 검색이 되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개최 중인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과 2025년 7월 18일 이민정책연구원과 전국 지자체 출연 31개 연구기관 간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MOU 체결도 이를 반증한다. 일부 시정연구원과 여성가족재단에서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지만, 대부분 기관에 전담 연구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시정연구원에 외국인 관련 전공자가 전무하다는 것은 한국 지자체의 외국인주민(혹은 이민정책) 관련 정책을 중시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론 중앙부처의 국가 차원의 정책을 넘어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정책 방향 설정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연구 목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상황과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한국 거주 외국인주민의 인구구조 특징을 서울시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장기체류 외국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전국의 21.1% 차지), 전국 외국인주민 중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18.3%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서울 총인구의 4.8% 차지), 인구감소 광역지자체 중 외국인주민 증가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타

지자체 대비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있는 편이지만,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이주배경학생,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수용성 등 특정 이슈 중심으로 전체적인 인구구조 변화 양상과 이에 따른 추세적 특징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양혜우 2025; 고다현&신인철 2023; 최선영 2022; 김자현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6년~2023년 기간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월)보’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분석 자료로 외국인주민의 인구구조 특징을 데이터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① 전국 대비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의 현황은 어떠한가? ②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구성은 어떠한가? ③ 외국인주민 유형별 어떠한 추세적 특징을 보이는가? ④ 향후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외국인주민 관련 사안은 무엇인가? ⑤ 서울시 더 나아가 중앙부처는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측면에서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의 현황과 추세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인구소멸 대응 측면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한 추세적 특징은 그동안 외국인주민(혹은 이민) 정책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II.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현황과 특징

1.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구성과 상대적 특징

2023년 말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월)보’ 기준, 서울시의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인 397,153명으로 전국의 21.1%를 차지한다. 이 중, 등록 외국인인 252,765명(전국의 18.7%)이고,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자는 144,388명(전국의 27.1%)이다. 장기체류 외국인 중 외국 국적 동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1 전국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비교〉

구분	총인구 대비 5% 이상	총인구 대비 4% 이상	총인구 대비 3% 이상	총인구 대비 2% 이상
외국인주민 10만명 이상	경기, 인천, 충남	서울, 경북, 경남		
외국인주민 5만명 이상	충북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외국인주민 3만명 이상	제주		광주, 울산, 강원	대전
외국인주민 3만명 미만				세종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Id=113261 (검색일: 2025.3.4) 통계자료 바탕으로 저자 분석.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449,014명으로 전국 외국인주민 중 18.3%를 차지한다. 수도권 거주 외국인주민이 전체의 57.8%를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생활 인구 비율은 더 높을 수 있다(<표 1> 참조). 이중 한국 국적 미취득자는 366,139명으로 81.5%, 한국 국적 취득자는 46,649명으로 10.4%, 외국인 주민자녀는 36,226명으로 8.1%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11.8%) 대비 외국인주민 자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은 2016년 대비 44,977명(1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 증가율 135.4%p 대비 낮은 수치이다. 이중 한국 국적 미취득자,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는 각각 9.2%p, 14.4%p, 28.9%p로 외국인주민 자녀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이는 전국 증가율 흐름과 유사하다(<표 2> 참조).

<표 2 전국 대비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구성 현황>

구분	서울		전국	
	비중	2016년 대비 증가율	비중	2016년 대비 증가율
한국 국적 미취득자	81.5%	9.2%	78.7%	36.9%
한국 국적 취득자	10.4%	14.4%	9.5%	47.1%
외국인주민 자녀	8.1%	28.9%	11.8%	51.4%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i/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Id=113261 (검색일: 2025.3.4) 통계자료 바탕으로 저자 분석.

2. 서울 거주 한국 국적 미취득자 현황과 특징

2023년 말 기준, 서울 거주 한국 국적 미취득자 중 외국 국적 동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율(24.3%)이 가장 높은 것과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 국적 동포 비율은 28.7%로 전국 대비 7.5%p 높다. 그다음은 유학생으로 18.9% 비율을 보인다. 전국 대비 8.2%p 높은 수치이다. 이에 반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는 각각 11.5%와 8.7%로 전국 대비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 거주 한국 국적 미취득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외국 국적 동포와 유학생이 증가한 것에 반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대비 외국 국적 동포와 유학생은 각각 30.2%p와 85.8%p 증가하는데, 증가율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반해, 외국인 근로자는 2016년 대비 51.1%p 감소(43,916명)하여 전국 감소율 13.2%p와 큰 차이를 보인다(<표 3>).

〈표 3 전국 대비 서울 거주 한국 국적 미취득자 현황〉

구분	서울		전국	
	비중	2016년 대비 증가율	비중	2016년 대비 증가율
외국 국적 동포	28.7%	30.2%	21.2%	74.2%
유학생	18.9%	85.8%	10.7%	115.0%
외국인 근로자	11.5%	-51.1%	24.3%	-13.2%
결혼 이민자	8.7%	-4.4%	9.3%	12.9%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Id=113261 (검색일: 2025.3.7) 통계자료 바탕으로 저자 분석.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9세가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하향하는 흐름을 보인다. 20-29세 한국 국적 미취득자는 2016년 대비 20.0%p 증가한 수치로 전국 비율(24.3%)과 비슷하다.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50-59세와 60-69세 비율이 각각 17.8%와 13.5%로 전국 13.5%와 8.4% 대비 높다는 사실이다. 60-69세 한국 국적 미취득자가 2016년 대비 36.7%p 증가한 것 또한 주목이 필요한 변화이다.

출신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북아시아 출신이 68.0%로 과반을 차지한다. 전국 비율 43.2%보다 24.8%p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동남아시아로 13.8%를 차지한다. 전국 비율이 33.6%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서울 거주 동남아시아 출신 한국 국적 미취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미국과 유럽 출신은 10.0% 미만으로 5.2%와 4.4% 수준이다. 눈여겨 볼 변화는 동북아시아 출신이 2016년 대비 3.2%p 감소한 반면, 동남아시아 출신은 125.3%p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동남아시아 출신의 증가율은 전국 70.9%p 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이런 변화를 국적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은 41.7%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2016년 대비 14.0%p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베트남과 태국 출신은 각각 6.6%와 4.1%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2016년 대비 각각 139.9%p와 268.0%p 증가하면서 동남아시아 출신 비율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된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이 각각 7.0%와 6.7%인

것에 반해 서울은 2.0%와 2.4%로 높지 않다는 점도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이다.

1) 외국 국적 동포 현황과 특징

서울 거주 외국 국적 동포의 과반은 50세 이상의 한국계 중국인이다. 연령은 60-69세가 31.0%로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50-59세(22.3%)이다. 그리고, 2016년 대비 각각 40.4%p와 72.1%p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출신 지역과 국적 같은 경우는 동북아시아가 85.1%이고 그중 한국계 중국인이 84.9%를 차지하는 등 소위 말해서 ‘조선족’ 비율이 매우 높다. 이에 비해, 미국 출신 동포는 8.1%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 동포 특성상 5년 이상 체류자가 70.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유학생 현황과 특징

서울 거주 유학생 또한 동북아시아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동북아시아 출신은 전체의 52.9%로 두 번째로 많은 동남아시아 출신 26.7%와 26.2%p 차이를 보인다. 단, 동북아시아 출신이 2016년 대비 48.3%p 증가한 것에 비해 동남아시아 출신은 256.2%p가 증가한다.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베트남 출신이 전체의 21.2%로 가장 많을 뿐 아니라, 2016년 대비 385.8%p의 증가율을 보이며 중국 출신(40.7%) 유학생과의 규모 격차를 줄이고 있다.

유학생 현황을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장기체류자 중 유학생은 약 74,976 명으로 18.9%를 차지한다. 이중 학사 유학(D2-2)이 34.4%로 가장 많고,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D4-1)가 24.6%, 석사 유학(D2-3)이 20.3%의 비율을 보인다. 2016년 대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는 유학생은 전문 학사(D2-1)로 1,890.6%p(비율은 2.8%)를 나타낸다.

3)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특징

서울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연령이 높은 대신 체류 기간은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류 기간 3년 미만인 69.0%이고, 1년 미만은 29.0%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인다. 연령 같은 경우는 50-59세가 35.9%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고, 40-49세 또한 18.5% 수준이다.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동북아시아가 71.5%로 절대다수이고, 그중 한국계 중국인이 63.5%를 차지한다. 단, 태국 출신이 1.9%로 낮지만 2016년 대비 115.5%p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결혼 이민자 현황과 특징

서울 거주 결혼 이민자의 대부분은 5년 이상 거주자로 동북아시아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결혼 이민자 중 10년 이상 체류자가 53.1%로 가장 많고, 다음이 5-10년 미만으로 23.5%이다. 이들 중 30-39세가 32.3%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40-49세로 26.8%를 차지하고 있다. 출신 지역 같은 경우는 동북아시아가 54.0%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동남아시아(16.0%)이다. 이중 한국계 중국인이 2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은 중국인(18.4%)이다. 미국과 일본 출신도 각각 12.2%와 8.7%로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서울 거주 한국 국적 취득자와 외국인주민 자녀의 현황과 특징

1) 한국 국적 취득자 현황과 특징

2023년 말 기준, 서울 거주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주민은 총 46,649명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한다. 2016년 대비 5,874명(14.4%p)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 중 80.0% 이상이 10년 이상 체류자로 11년 이상이 61.2%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연령 또한 50-59세가 23.5%로 가장 많고, 40-49세와 60-69세도 각각 21.0%와 18.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국적 취득자의 대부분은 동북아시아 출신으로 84.1%를 차지한다. 이중, 한국계 중국인이 61.1%, 중국인이 18.4%로 대부분이 중국 출신임을 알 수 있다. 단, 베트남 출신이 2016년 대비 90.4%p 증가하며 8.2%로 비율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과 특징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자녀의 대부분은 국내출생으로 부모 국적이 동북아

시아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2023년 기준, 국내출신 자녀와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자녀는 각각 91.2%와 8.8% 비율이다. 이중, 부모 국적이 동북아시아인 자녀는 46.7%로 18,561명이다. 그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로 26.8%를 차지한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부모 국적이 중국인 경우가 19.6%, 한국계 중국인 경우가 18.4%이다. 눈여겨 볼 부분은 베트남인 경우가 18.2%이고 2016년 대비 72.8%p나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부모 국적이 미국인 자녀도 11.4%이고 증가율이 88.9%p일 정도로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인구구조의 추세적 특징

1. 코로나19 영향, 종식 후 증가율 하락

코로나19로 감소하였던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은 2022년 다시금 증가를 하지만, 2023년 증가율이 재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즉, 코로나19 종식 이후 외국인주민의 수는 늘어나지만, 증가율은 감소하면서 향후 지속해서 늘어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주민은 2022년 2021년 대비 3.6%p 증가한다. 하지만, 2023년 1.5%p 증가율을 보이면서 다시금 꺾이게 된다. 이는 전국적으로 2022년 5.8%p, 2023년 8.9%p로 증가율이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 국적 미취득자는 2022년 4.0%p에서 2023년 1.4%p로 증가율이 하락하고(전국은 6.2%p → 10.4%p), 한국 국적 취득자도 2022년 2.3%p에서 2023년 1.9%p로 감소한다(전국은 6.1%p → 4.8%p).

2023년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증가율 감소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한국 국적 미취득자에서 나타난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율은 2022년 -12.1%p에서 2023년 -3.9%p로 인원은 감소하지만, 감소율은 줄어든다(전국은 2.0%p → 16.6%p로 증가). 하지만, 유학생은 29.2%p에서 3.2%p로 증가율이 하락하고, 외국 국적 동포와 결혼 이민자는 하락 전환한다. 외국 국적 동포는 2022년 2.2%p에서 2023년 -0.2%p로 하락하고, 결혼 이민자도 2022년 2.2%p에서 -0.3%p로 하락 전환된다. 전국적으로 유학생과 외국 국적 동포도 증가

율이 줄어들지만, 후자 같은 경우 여전히 수가 늘어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심지어 전국 결혼 이민자는 2023년 2.5%p로 증가한다(<표 4> 참조).

<표 4 코로나19 종식 후 전국과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증가율 비교>

구분	서울			전국		
	2022년	2023년	추세	2022년	2023년	추세
외국인 주민	3.6%	1.5%	하락	5.8%	8.9%	상승
한국 국적 취득자	2.3%	1.9%	하락	6.1%	4.8%	하락
한국 국적 미취득자	4.0%	1.4%	하락	6.2%	10.4%	상승
외국인 근로자	-12.1%	-3.9%	상승	2.0%	16.6%	상승
유학생	29.2%	3.2%	하락	20.9%	8.9%	하락
외국 국적 동포	2.2%	-0.2%	하락	7.9%	3.4%	하락
결혼 이민자	2.2%	-0.3%	하락	0.6%	2.5%	상승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fId=113261 (검색일: 2025.3.7) 통계자료 바탕으로 저자 분석.

2. 남녀 성비 불균형, 높은 여성 비율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의 남녀 성비는 전국 수치와 대조적인 특징을 보인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중 여성은 250,755명으로 55.8%를 차지한다. 남성 비율과 11.6%p 차이를 보인다. 전국적으로 남성이 52.5%로 여성보다 더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2016년 대비 증가율 또한 여성은 36,079명(16.8%p)이 증가한 것에 비해, 남성은 8,898명(4.7%p)에 그친다.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중 여성 비율이 높은 이유는 결혼 이민자와 유학생의 60.0% 이상이 여성인 것과 관련이 있다. 결혼 이민자 중 여성 비율은 67.8%로 2016년 대비 9.1%p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유학생 같은 경우는 67.6%로 2016년 대비 93.5%p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가 전국 대비 여성 비율이 높은 것도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이다. 다른 한편, 한국 국적 취득자 대부분도 여성으로 70.3%를 차

지하고 있다. 증가율 또한 2016년 대비 15.6%p로 남성 11.6%p와 큰 차이를 보인다(<표 5> 참조).

<표 5 전국과 서울 거주 여성 외국인주민 비율 비교>

구분	서울		전국	
	2023년	2016년 대비	2023년	2016년 대비
외국인 주민	55.8%	16.8%	47.5%	42.9%
한국 국적 취득자	70.3%	15.6%	79.3%	46.9%
한국 국적 미취득자	54.7%	16.1%	43.5%	40.7%
외국인 근로자	41.9%	-48.5%	18.0%	-32.4%
유학생	67.6%	93.5%	54.4%	107.5%
외국 국적 동포	50.3%	18.6%	48.2%	69.9%
결혼 이민자	67.8%	-9.1%	77.7%	7.0%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fId=113261 (검색일: 2025.3.7) 통계자료 바탕으로 저자 분석.

3. 예견된 고령화 이슈, 높은 60대 이상 비율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의 연령 분포를 고려하였을 때, ‘고령화’ 이슈는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 국적 취득자의 26.3%, 한국 국적 미취득자의 17.4%가 60대 이상으로, 외국인주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0% 이상)에 진입 혹은 예정이라 할 수 있다. 50-59세 비율까지 감안하면 예정된 미래이다. 즉, 서울 같은 경우는 내국인의 고령화 이슈뿐 아니라, 외국인주민의 고령화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서울의 외국인주민 고령화는 전국대비 높은 수준으로 한국 국적 취득자와 한국 국적 미취득자 각각 11.1%p와 6.4%p 높다. 50-59세 비율 또한 전국 대비 높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서울의 외국인주민 고령화 이슈는 ‘지역적’ 장기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외국 국적 동포 비율이 높다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전체 한국 국적 미

취득자 중 외국 국적 동포가 28.7%인데, 그중 41.8%가 60대 이상이기 때문이다(<표6> 참조).

〈표 6 전국과 서울 거주 외국인 60대 이상 비율 비교〉

구분	서울		전국	
	60대 이상	50-59세	60대 이상	50-59세
한국 국적 취득자	26.3%	23.5%	15.2%	18.6%
한국 국적 미취득자	17.4%	17.8%	11.0%	13.5%
외국인 근로자	7.3%	35.9%	1.8%	10.6%
유학생	0.0%	0.1%	0.0%	0.1%
외국 국적 동포	41.8%	22.3%	35.1%	20.6%
결혼 이민자	11.9%	19.3%	7.8%	15.9%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Id=113261 (검색일: 2025.3.7) 통계자료 바탕으로 저자 분석.

4. 출신 국가 다원화, 동남아시아 출신 증가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중 동남아시아 출신이 큰 폭에서 증가한다. 중국인 ‘일색’에서 출신 국가가 다원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국적 미취득자 중 동북아시아 출신이 68.0%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전국 대비 24.8%p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2016년 대비 3.2%p 감소하였고, 한국계 중국인의 증가율은 -14.0%p를 나타낸다. 전국적으로 동북아시아 출신이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에 반해, 한국 국적 미취득자 중 동남아시아 출신은 13.8%로 전국 33.6%보다 낮은 비율이지만,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다. 2016년 대비 125.3%p가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 70.9%p를 능가한다.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이 6.6%로 가장 많고, 증가율도 139.9%p를 보인다. 태국 출신은 비록 비중은 4.1%로 크지 않지만, 268.0%p를 보이며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과 태국 출신 모두 전국 대비 비중은 작지만, 증가율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전국과 서울 거주 한국 국적 미취득자 출신 지역과 국가 비교〉

구분	서울		전국	
	2023년	2016년 대비	2023년	2016년 대비
동북아시아	68.0%	-3.2%	43.2%	11.3%
중국(한국계)	41.7%	-14.0%	27.5%	8.6%
중국	18.9%	14.2%	11.4%	9.7%
동남아시아	13.8%	125.3%	33.6%	70.9%
베트남	6.6%	139.9%	12.8%	85.8%
태국	4.1%	268.0%	9.9%	131.9%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i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fId=113261 (검색일: 2025.3.7) 통계자료 바탕으로 저자 분석.

5. 동포 중심 사회, 장기 체류 한국계 중국인 증가

서울 거주 한국 국적 미취득자 중 외국 국적 동포 비중이 가장 크고, 전국 대비 고연령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 중 50세 이상이 64.0%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 이슈의 주요 대상자이다. 5년 이상 체류자가 전체의 70.7%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될 확률도 높다. 다른 한편, 외국 국적 동포 중 한국계 중국인이 8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서울 거주 외국 국적 동포의 특징은 전국 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더욱 뚜렷하다. 우선, 서울 거주 외국 국적 동포 비중이 전국 대비 7.5%p 크다. 50세 이상과 5년 이상 체류자도 각각 8.4%p와 1.5%p 차이가 난다. 한국계 중국인 비중도 전국 대비 9.8%p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2016년 대비 모든 특징에서 전국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향후 전국적인 특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표 8 전국과 서울 거주 외국 국적 동포 현황 비교〉

구분	서울		전국	
	2023년	2016년 대비	2023년	2016년 대비
비중	28.7%	30.2%	21.2%	74.2%
연령(50세 이상)	64.0%	60.3%	55.6%	95.3%
체류 기간(5년 이상)	70.7%	145.7%	69.2%	204.2%
국적(한국계 중국인)	84.9%	36.8%	75.1%	65.0%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Id=113261 (검색일: 2025.3.7) 통계자료 바탕으로 저자 분석.

6. 유학생 선호 도시, 높은 학석사 비율

유학생은 한국 국적 미취득자 중 외국 국적 동포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주민으로 전체의 18.9%이다.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신 지역은 동북아시아가 52.9%로 과반을 차지한다. 전국 37.8%보다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출신이 2016년 대비 256.2%p 증가하여 26.7% 비중으로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증가율을 고려하였을 때,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유학생 비율이 더욱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이 지속 증가할지가 관건이라 하겠다. 둘째,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인 학생이 4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8.5%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인 유학생의 서울 소재 대학 선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베트남 출신으로 21.2%로, 전국 대비 비중은 작지만 2016년 대비 385.8%p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한 가지 눈여겨 볼 현상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이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비율이 5.9%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서울 소재 대학의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표 9> 참조).

〈표 9 전국과 서울 거주 유학생 현황 비교〉

구분		서울		전국	
		2023년	2016년 대비	2023년	2016년 대비
비중		18.9%	85.8%	10.7%	115.0%
지역	동북아시아	52.9%	48.3%	37.8%	29.2%
	동남아시아	26.7%	256.2%	41.8%	395.0%
국가	중국	40.7%	35.1%	28.5%	13.8%
	베트남	21.2%	385.8%	36.6%	518.4%
	몽골	6.6%	107.8%	6.3%	138.2%
	일본	3.9%	166.8%	2.1%	108.0%
	우즈베키스탄	2.3%	190.3%	5.9%	458.8%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i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Id=113261 (검색일: 2025.3.7) 통계자료 바탕으로 저자 분석.

서울 거주 유학생의 현황을 학위 과정별로 살펴보면, 학사유학(D2-2) 과정이 34.4%(전국은 3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와 석사유학(D2-3) 과정이 각각 24.6%와 20.3%인 것으로 나타난다(전국은 30.9%와 14.6%). 학·석사 과정이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단순 교류나 어학연수 목적의 유학생 비중이 높지 않다. 주목할 현상은 박사유학 과정 학생이 8.6%(전국은 10.1%)에 불과하지만, 2016년 대비 258.6%p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대학원 과정 유학생이 28.9%로 학사 과정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이 된다. 이밖에 전문학사(D2-1) 과정의 학생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1,890.6%p)(<표 10> 참조).

〈표 10 서울 거주 유학생 학위 과정별 현황〉

구분	인원	비중	2016년 대비	
			증가 인원	증가율
D2-1(전문학사)	2,110명	2.8%	2,004명	1,890.6%
D2-2(학사유학)	25,800명	34.4%	10,448명	68.1%
D2-3(석사유학)	15,201명	20.3%	7,111명	87.9%
D2-4(박사유학)	6,465명	8.6%	4,662명	258.6%
D2-5(연구유학)	92명	0.1%	49명	114.0%
D2-6(교환학생)	4,929명	6.6%	537명	12.2%
D2-7(일-학습연계유학)	1,176명	1.6%	1,043명	784.2%
D2-8(방문학생)	764명	1.0%	627명	457.7%
D4-1(대학부설어학원연수)	18,439명	24.6%	2,832명	18.1%
D4-7(외국어연수)	-	0.0%	-	-
합계	74,976명	100.0%	29,313명	64.2%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 2016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4). 2023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법무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 (검색일: 2025.5.8) 통계자료 바탕으로 저자 분석.

IV. 결론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현황과 추세적 특징을 데이터 분석한 결과 직면하게 될 이슈가 명확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인구소멸 ‘대응책’으로서는 인구구조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비율이 18.9%로 전국(10.7%) 대비 높다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외국인주민 전체적으로 50대 이상 비율(35.2%)이 높다는 점은 향후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장 비율이 높은 외국 국적 동포의 64.0%가 50세 이상이라는 점은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적용 여부와 범위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인구소멸 대책 중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는 외국인주민 정책의 향방이 사회복지 정책과 내·외국인 갈등

등 이슈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높은 유학생 비율은 인구소멸 그중에서도 인력난 해결 측면에서 긍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서울 거주 유학생의 출신 국가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 현상이다. 다만, 통계청 ‘이민자 체류 실태와 고용조사’에 의하면 서울 유학생 중 취업자 비율은 10.7%(경제활동 참가율 12.9%)로 다른 유형의 외국인주민과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취업률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유학생 비율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한국 사회 정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유학생 취·창업 이슈는 내·외국인 사회통합 문제와도 직결이 된다. 외국인을 취업 경쟁자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홍보 그리고 상호 인식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높은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비율은 ‘반중 정서’ 이슈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이다. 한국에서 반중 정서는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대중국 이미지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는 2002년 65.0%에서 2025년 19.0%까지 급락한다(“International Views of China Turn Slightly More Positive”, 2025).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중국을 ‘경계 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2007년 31.0%에서 2024년 58.7%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김범수 외, 2024, p.143).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한국(서울) 거주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에 대한 인식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고, 밀집 지역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내·외국인 사회통합 이슈를 넘어 외국 국적 동포의 84.9%가 한국계 중국인이라는 점은 향후 동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중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비율은 한편으론 외국인주민 여성들을 위한 정책 개발과 실행 필요성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남녀 갈등 등 사회적 이슈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혼 이민자(67.8%)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실제 많은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67.6%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 유학생 같은 경우는 정부가 대학과 협력하여 엄밀한 조사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20-30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지원 정책의 범위를 외국인주민에게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겠다.²⁾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소멸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늘어나는 외국인주민만큼 직면해야 할 이슈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과 사회통합 그리고 인권까지 정부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고 향후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예견된 갈등을 직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점진적인 사회적 합의를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2) 외국인주민에게 적용 가능한 사회복지제도를 검토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으로 향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참고문헌

- 강동관.(2021). 한국의 인구구조와 외국인 정책 방향: 이민자유입, 사회통합, 거버넌스. *한국이민정책학보* 제4권 제2호.
- 고다현&신인철.(2023). 서울시 외국인주민 거주지의 확장과 선주민 청년과의 자가주택 경쟁. *한국이민정책학보* 제6권 제1호.
- 김범수, 김병로, 장용석, 최은영, 황수환, 이성우, 김택빈&김민지.(2024). 2024 통일외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수정.(2019). 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2권 2호.
- 김자현.(2018). 서울특별시 거주 외국인의 정착 및 사회통합 방안: 주민권을 중심으로 한 조례 개선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1권 1호.
- 류형철.(2023). 광역비자 도입의 실효적 추진 방안. *경북연구원 CEO BRIEFING* 제701호.
- 류형철, 나중규, 안성조, 오수미, 김규섭&안권욱.(2024). 글로벌 이주사회 경상북도 대전환 기본구상: K-베트남 밸리 조성을 중심으로. *경북연구원 보고서*.
- 양혜우.(2025). 정치공동체로의 초대: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실험이 남긴 것.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4권 제1호.
- 이동형&류형철.(2023). 세계로 열린 경북 주도 외국인공동체 구상. *경북연구원 보고서* 연구2023-14.
- 이병하.(2023). 한국에서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 이민국가의 관점에서. *담론201* 제26권 1호.
- 최선영.(2022). 외국인주민의 출신국가별 특성에 따른 서울시 외국인정책의 차등화 — 아시아권과 비(非)아시아권 구분을 중심으로 — *대한지리학회지* 제57권 제1호.
- 관계기관 합동.(2023). 제4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안)(2023~2027).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검색일: 2025.5.4).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 2016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법무부*

- 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 (검색일: 2025.5.8).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4).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6/artclList.do> (검색일: 2025.5.4).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4). 2023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법무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 (검색일: 2025.5.8).
-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Id=113261 (검색일: 2025.3.4).
- Silver, Laura et al.(2025, July 15). International Views of China Turn Slightly More Positive,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5/07/15/international-views-of-china-turn-slightly-more-positive/> (검색일: 2025.8.7).

Manuscript: September 2, 2025; Review completed: September 14, 2025; Accepted: September 23, 2025